

직업계고 해외 산업현장 탐방... 산·학 연계 성과

ECONOMY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광주경총, 튀르키예 방문 지원... 시교육청 첫 협업 글로벌 생산공정·안전시스템 등 진로 탐색 기회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산업현장 탐방을 지원하며 산학연계 기반 넓히기에 힘을 쏟고 있다. 9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직업계고 취업동아리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경총이 공동 기획하고 추진했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탐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수 진행돼 왔지만 산·학이 연계한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광주금공업고등학교 등 지역 내 6개 직업계고 학생 14명이 참여했다. 해외 우수 산업현장 탐방 기회를 제공, 진로탐색과 글로벌 감

각 향상을 돕기 위한 취지다. 광주경총은 앞서 지난 7월 선발대를 통해 탐방기업 협의, 교육기관 점검, 생활 인프라, 문화·역사 사전답사, 비상대응 체계 확인 등을 점검했고 체류비, 항공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또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산업시설 연계와 방문 협의를 주도했다. 탐방단은 ㈜호원 오토모티브 튀르키예와 현대차 튀르키예공장을 찾아 자동차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전공 학습과 산업 현장의 연결고리를 확인했다. 또 글로벌 생산 공정과 안전 시스템을 배우며 진로 탐색의 시야를 넓혔고, 매일 소감 공유와 귀국 후 보고서 작성으로 발표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광주경총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직업계고 취업동아리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직업계고 학생 대상 해외 직업교육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으로 교육 행정적 시스템을 배우며 진로 탐색의 시야를 넓혔고, 매일 소감 공유와 귀국 후 보고서 작성으로 발표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지역 산업계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었다. 학생들이 글로벌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지역 대표기업의 경쟁력을 체감했고, 이는 지역 기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산학 연계 활성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탐방 경험은 각 학교 취업동아리 활동으로 연결,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콘텐츠로 축적될 전망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과 실무 경험으로 큰 용기를 가졌을 것"이라며 "직업계고와 기업 간 맞춤형 연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내년에도 해외탐방 프로그램 예산을 더 확대해 꾸준히 운영할 면 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 정규직 620명 채용 고졸공채 등 16~23일 접수

한국전력은 우수 인재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하반기 620명 규모의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다. 한전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일반공채(421명)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고졸공채 70명 △배전직기원 50명 △연구·전문직 등 기타 79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채용 공고는 한전 채용 홈페이지(recruit.kepco.co.kr)와 알리오에 게시된다. 이번 채용 인원의 약 80%는 전력망 건설과 현장 안전 강화 등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직 인력으로 충원된다. 일반공채의 경우 사무직은 학력·전공·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기술직은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또는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에게는 서류 및 필기전형에서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혁신도시법에 따른 '본사 이전 지역 인재 채용목표제'도 운영된다. 한전은 채용과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인력 재배치도 병행한다. 전 직원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 패트를 점검 강화 등 자체 안전대책도 확대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하반기 일반공채 지원자는 한전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 절차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기아,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 DSEI 참가 타스만 파생차량·소형전술차 베어사시 전시

기아는 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DSEI UK 2025)에 처음 참가한다고 밝혔다. DSEI는 2년마다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전 세계 90여개국 1600여개 업체가 참가해 국방·보안 기술과 장비를 선보인다. 기아는 픽업트럭 타스만을 기반으로 제작한 특수목적 파생 차량을 유럽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불바(보호용 프레임), 스노클(침수 방지 흡기구), 탱크틸렉(적재함 선반)을 적용해 탑승자 보호와 도하능력을 강화하고 적재 공간을 효율화했다. 기아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소형전술차(KLTV) 베어사시도 전시할 계획이다. 소형전술차는 수심 760mm 하천 주행과 60% 중경사·40% 횡경사 주행이 가능하고 총탄·폭발물 보호, 영하 32도 시동, 전자차 차단 등 협시 주행 능력을 갖췄다.



지난 2016년부터 한국군에 납품되고 있는 기아의 소형전술차는 기동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아 현재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 군의 신형 표준차량으로 선정됐다. 기아는 또 소형전술차 베어사시를 기반으로 제작한 4인승 지휘차량 및 통신장비 탑재차량의 축소 모형을 전시한다. 기아 관계자는 "50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군 고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맞춤형 특수목적 차량을 제작해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KDN은 8일 전 임직원의 혁신 내재화를 위해 혁신 캠페인 'INNO-CATION'을 시행했다.

한전KDN, 임직원 업무 혁신 노하우 공유 'INNO-CATION' 시행... 아이디어 공모전 등

한전KDN은 8일 전 임직원의 혁신 내재화를 위해 혁신 캠페인 'INNO-CATION'을 시행했다. 'INNO-CATION'은 혁신(Innovation)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명칭으로, '휴가처럼 편하게' 참여하는 혁신을 지향한다. 기존의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혁신 이미지를 개선하고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캠페인의 부제는 '작은 가능성, 큰 변화의 시작'으로 정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업무혁신 노하우 공유 캠페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혁신 MINI 공모) △혁신 활동 공유·투표 이벤트 등 단계별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날 시작된 '업무혁신 노하우 공유 캠페인'에서는 출근길 직원들에게 홍보 자료를 배포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공유 분야는 △사내 시스템 활용법 △AI 기반 업무 수행 △사업 추진 시 법·규정 준수 사례 등으로, 우수 사례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한전KDN은 다음달 '혁신 MINI 공모'를 열어 자유 형식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11월에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혁신 사례 공유와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ICT 플랫폼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지역특산물 추석 '가성비 선물'로 뜬다

이마트 광주점 등 사전예약 전년비 80.7% ↑ 나주 배·진도 김·영광 굴비·완도 전복 등 인기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특산물로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9일 이마트 광주점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이마트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추석사전예약 실적 집계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80.7% 신장했다. 물품별로 보면 김세트 88.4%, 굴비 세트 73.4%, 배세트 28.6% 뛰었다. 다양한 추석 선물 물품 중 과일 선물은 합리적 가격대로 인기몰이 하고 있다. 특히 나주 전통배 세트는 고당도를 전면에 내세워 인기가 높다. 올해 배는 긴 폭염 탓에 멸절 선물용으로 적합한 대과 비중이 줄었지만 이마트 측은 물량을 사전 확보한 데 이어 행사 가격을 전년 대비 약 10% 낮추며 시장을 공략 중이다. 수산물세트에서는 김과 굴비가 주목 받고 있다. 진도 곱장돌김 세트, 임자도 명품갯벌김 세트가 대표 품목이다

이들 가운데 명품 영광 참굴비 2호세트는 3년 이상 간수를 천일염으로 삶간한 고급스러운 선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굴비 역시 원자재 가격이 15~20% 가량 상승했지만 저렴한 시기에 협력회사와 공동구매, 자체 마진 축소 등을 통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10% 내외로 잡았다. 청정해역에서 키운 고품질 전복으로 구성된 활전복 세트도 신선함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추석 사전예약 기간 14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전복 세트'는 올해 행사 가격을 전년보다 10%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이처럼 지역특산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또 다른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선물세트도 준비되고 있다. 청정해역인 완도바다의 자연산 미역과 활전복으로 구성된 세트도 특산물만을 모아 만든 지역 프리미엄 세트다.



명품 영광 참굴비1호는 1.3kg 국내산 참굴비만을 엄선, 구성된 특산물세트다. 정승기 이마트 광주점장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추석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 추석은 폭염과 호우로 어려운 생산능가를 돕는 지역특산물세트가 인기인 만큼 다양한 지역특산물 세트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이마트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행사카드도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 최대 50%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 또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도 증정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그린스마트팜 등 특화산업 성장 지원 '온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기업 성장 정책자금 연계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9일 국립순천대학교와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사업장장, 문승태 순천대 대학협력부총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지역특화산업인 그린스마트팜, 에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의 강소지역기업 육성과 지역 내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산업 분야 강소기업 공동발굴,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내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산업 분야 강소기업 공동발굴,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내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산업 분야 강소기업 공동발굴,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내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9일 국립순천대학교와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사업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어 대학-기업-지역이 상생하는 협력 모델 구축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승태 순천대 대학협력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중진공이 함께 지역기업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시지점"이라며 "대학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 맞춤형 인재양성과 중진공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결합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사업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과 대학이 함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국기능경기대회 봉사자 발대 광주기능경기위, 206명 구성

광주기능경기위원회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2025 광주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자원봉사자는 총 20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기장 안내, 환경미화, 주차 안내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경기장 내·외부 질서를 유지하고 참가자 및 경기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과 대학생, 지역 봉사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대회 현장에서 참가 선수단과 방문객을 맞이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에 기여할 예정이다. 윤옥균 운영위원장장은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발대식을 계기로 이번 대회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산업용로봇, 폴리메카닉스 등 51개 직종에 1725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기능경기위원회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2025 광주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